Research Center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 Daily

2012년 11월 26일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기술적분석 | **김철중** ☎ 3276-6247
계량/파생 | **안 혁** ☎ 3276-6272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딧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재정절벽보다 중요한 것들
- **이머징마켓 동향**
  정책 및 경기회복 기대로 중국 증시 반등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동일금속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LS 외 5종목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true friend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1/16(금)	11/19(월)	11/20(화)	11/21(수)	11/22(목)	11/23(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860.83	1,878.10	1,890.18	1,884.04	1,899.50	1,911.33
	등락폭		−9.89	17.27	12.08	−6.14	15.46	11.83
	등락종목	상승(상한)	241(5)	603(6)	484(3)	271(4)	439(4)	402(2)
		하락(하한)	585(2)	237(1)	340(0)	549(0)	365(2)	405(1)
	ADR		75.36	79.59	81.58	80.42	82.29	87.53
	이격도	10일	97.89	98.96	99.79	99.75	100.65	101.24
		20일	97.61	98.68	99.41	99.17	100.05	100.62
	투자심리		30	40	40	30	40	50
	거래량	(백만 주)	459	346	368	372	408	324
	거래대금	(십억 원)	3,988	3,204	3,663	3,894	3,691	3,536
코스닥	코스닥지수		482.99	493.14	496.66	492.19	497.03	498.82
	등락폭		−10.85	10.15	3.52	−4.47	4.84	1.79
	등락종목	상승(상한)	218(6)	724(10)	558(12)	314(7)	558(10)	468(10)
		하락(하한)	735(9)	218(4)	375(7)	631(6)	372(6)	456(1)
	ADR		74.44	78.26	80.09	78.76	82.42	87.78
	이격도	10일	94.60	97.01	98.11	97.73	99.12	99.90
		20일	94.44	96.71	97.66	97.09	98.25	98.67
	투자심리		60	60	60	50	50	50
	거래량	(백만 주)	465	391	428	405	468	410
	거래대금	(십억 원)	2,239	1,574	1,897	1,774	1,762	1,711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765.9	828.0	939.0	161.1	110.7	241.3	51.7	27.3	217.5	41.4
	매도	1,965.8	667.3	888.8	171.0	136.9	216.7	25.8	31.4	157.0	52.2
	순매수	**−199.9**	**160.7**	**50.1**	**−9.9**	**−26.2**	**24.6**	**25.9**	**−4.1**	**60.5**	**−10.9**
	11월 누계	**−335.9**	**−377.1**	**893.7**	**36.5**	**20.2**	**155.0**	**45.3**	**34.2**	**576.1**	**−180.7**
	12년 누계	−11,413.0	13,300.8	2,949.1	1,620.3	2,582.6	−4,937.9	24.0	452.0	2,816.6	−4,836.9
코스닥	매수	1,545.6	54.1	117.5	18.5	13.8	40.3	4.9	5.9	29.5	15.4
	매도	1,540.5	71.1	101.2	19.0	8.5	40.4	10.1	5.4	15.6	19.8
	순매수	**5.2**	**−17.0**	**16.2**	**−0.6**	**5.4**	**−0.1**	**−5.2**	**0.5**	**13.9**	**−4.4**
	11월 누계	**55.3**	**−85.3**	**168.6**	**40.6**	**9.1**	**106.6**	**−57.7**	**4.1**	**57.0**	**−138.6**
	12년 누계	1,148.0	29.2	−324.2	92.9	90.1	−507.7	−253.0	−34.3	278.7	−853.1

박중제(jj.park@truefriend.com) ☎ 02-3276-6560

재정절벽보다 중요한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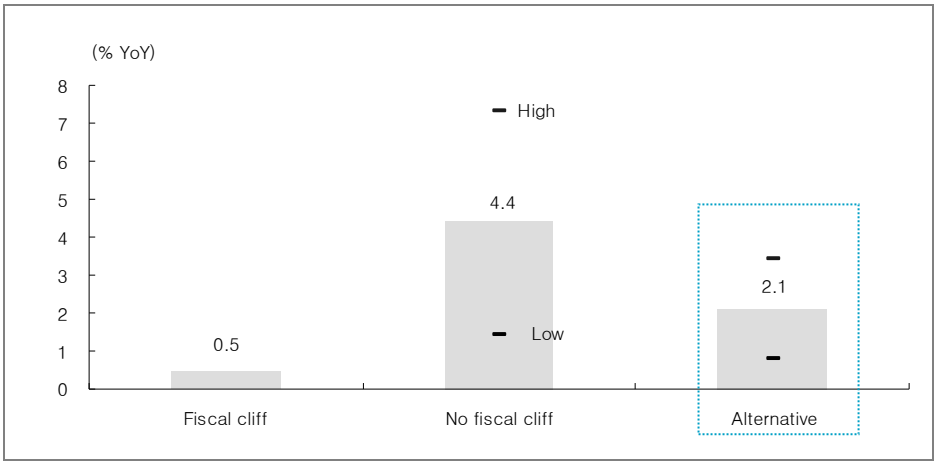
11월 월간 밴드	1,870-2,030pt
2012년 하반기 밴드	1,750-2,100pt
12MF PER	9.1배
12MF PBR	1.02배
Yield Gap	8.3%P

▶ 2013년 미국 GDP: Fiscal cliff 시나리오 0.5% / Alternative 시나리오 1.9~2.1%
▶ 30년 만에 나타난 경제철학의 전환: 공급→수요. 세금인상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 아님
▶ 미국의 자생적 성장: 지난 2분기를 바닥으로 개선되는 그림 가능, 연말 소비는 긍정적

■ Fiscal cliff 이슈 정리

미국의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의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Fiscal cliff가 현실화될 경우 내년 미국의 GDP 성장률은 0.5%로 떨어지게 된다. 특히 2013년 상반기 예상 성장률은 -1.3%로써 사실상 경기침체에 빠지게 된다. 한편 CBO는 일부 법안 및 정책의 수정을 고려한 Alternative 시나리오도 제시했는데, 이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성장률과 비슷한 2.1%를 예상하고 있다.

[그림 1] 미국 재정절벽 시나리오에 따른 2013년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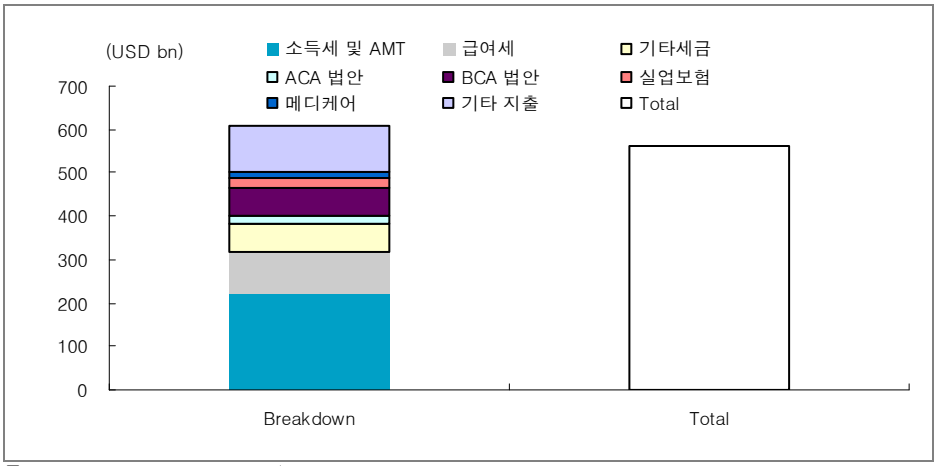


자료: CBO, 한국투자증권

현실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Alternative 시나리오이다. 즉 장기적인 목표인 재정의 안정을 위해 세금 시스템을 개혁하고 무분별한 정부 지출을 줄이면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충격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CBO가 가정한 Alternative 시나리오의 가정을 살펴보고 현실성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CBO가 Fiscal cliff 시나리오로 가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가정을 살펴보면 2013년 총 재정적자 감축 규모는 5,600억 달러이고 이 중 소득세 및 AMT(Alternative Minumum Tax, 최저한세) 증세가 39.4%, 급여세 인상이 16.9%, 기타 세금 정상화가 11.6%를 차지한다[그림 2].

[그림 2] 2013년 재정감축 계획 Breakdown



주: ACA=Affordable Care Act / BCA=Budget Control Act
자료: CBO, 한국투자증권

이와 비교할 때 Alternative 시나리오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급여세(Payroll tax)를 제외한 세금 혜택은 추가로 연정된다
2) AMT(최저한세)는 인플레이션에 연동된다
3) 메디케어의 의료비 비율은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
4) BCA(Budget Control Act)법안에 규정한 정부지출 삭감안을 유보한다

그렇다면 내년도 미국 GDP 성장률 2.1%를 가정하고 있는 Alternative 시나리오의 구체적인 현실성을 따져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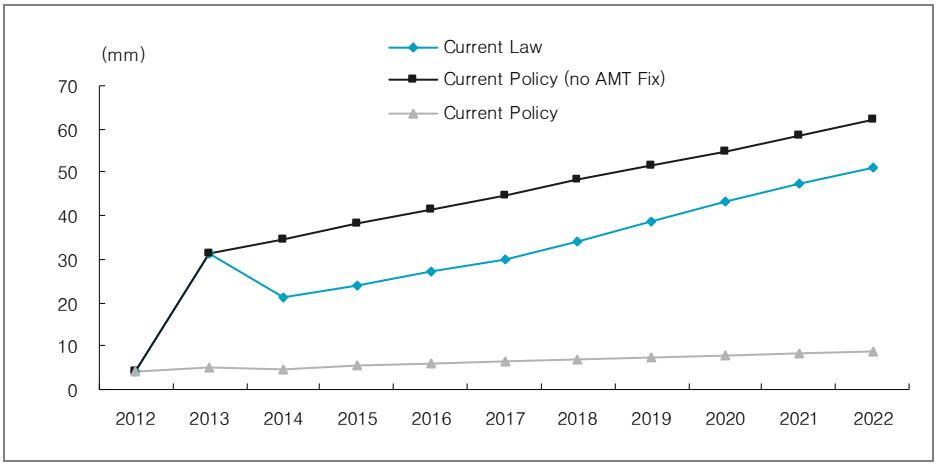
먼저 소득세의 세율에 대해서는 고소득층(연간 가구 소득 25만 달러 이상)을 제외하고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기존의 감세를 연장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다만 양당의 시각차는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 여부에서 엇갈리는데 만약 고소득층의 세율이 인상될 때 전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GDP 대비 0.2%에 달한다. 따라서 고소득층의 세율만 인상하고 나머지 소득구간에 대해서는 소득세 수준을 현재 비율대로 유지하는 시나리오에서 내년 미국의 GDP 성장률은 1.9%를 기록할 전망이다.

AMT는 결과에 따라 미국 중산층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다. 주로 부유층이 비과세 및 공제를 활용해 과도하게 조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을 막고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설계된 것으로 미국에서는 1969년에 제정되었다.

문제는 AMT를 적용을 받게 되는 임금수준이 물가에 연동되지 않아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2000년 이후 매년 AMT의 수준을 조정하고 있는데 만약 올해 합의에 실패할 경우 결혼한 가구의 AMT 수준은 74,450달러에서 45,000로 낮아지게 된다.

2012년 현재 AMT를 적용받는 납세자수는 400만명이다. 그런데 AMT에 대한 조정이 없을 때 2013년에는 3,000만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1인당 평균 추가 조세 부담은 약 4,000달러에 달한다.

[그림 3] AMT(최저한세) 적용 받는 미국 납세자의 숫자 시나리오



자료: Tax Policy Center, 한국투자증권

따라서 AMT에 대한 처리 방안이 Fiscal cliff 이슈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구조적으로는 AMT를 인플레이션에 연동하는 것과 함께 2013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연장하는데 대해 민주당과 공화동이 모두 찬성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판단해보면 향후 Fiscal cliff는 CBO가 제시한 Alternative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2013년 GDP 성장률은 올해와 유사한 1.9~2.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Fiscal cliff에 대한 합의를 언제 할지, 혹여 양당의 정치적 치킨 게임으로 아무런 합의없이 2013년을 맞이하지 않을지 등 갖은 불확실성이 주식시장을 사로잡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의 Baseline 시나리오는 일단 올해 레임덕 국회에서 2~3개월간 임시 연장을 한후 내년 초에 미국 부채상한 연장과 함께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다.

특히 2008년 이후 정치가 경제와 금융시장에 핵심 변수로 대두된 무수히 많은 경우를 경험하며 느낀점은 특히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적 위험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 기간 동안 비록 서구의 정치가 단기적으로는 속시원해보이는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경제와 시장의 발목을 심각하게 잡은 적도 없었던 것 같다.

■ 30년만의 경제기조 변화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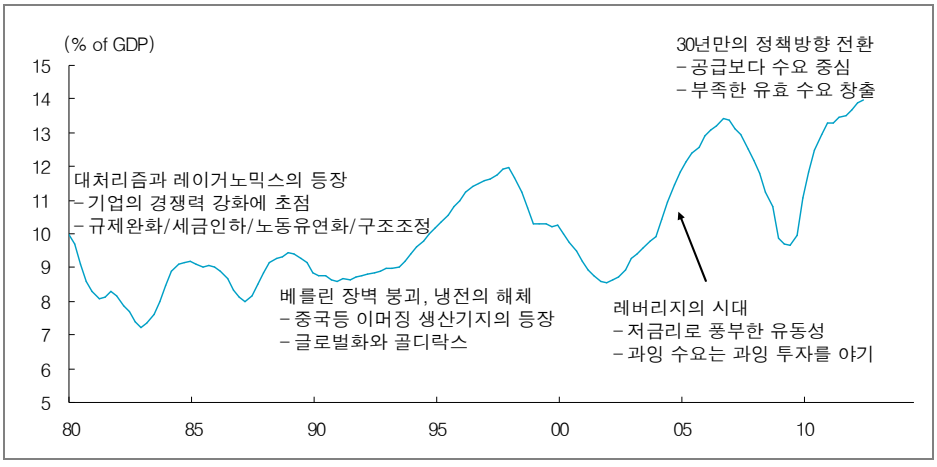
Fiscal cliff를 어떻게 넘길 것인지가 우리가 현재 직면한 문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지난 수십년간 지속된 경제철학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점이다.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의 등장이 상징하는 것처럼 1980년대 이후 30년동안 전세계 경제는 개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없애고 사회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변화는 이른바 '공급주의 경제'의 철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공급주의 경제'란 경제의 두 사이드 즉, 수요와 공급 가운데 공급쪽의 경쟁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전체 경제의 발전에도 좋다는 것이고 실제 1980년대 이후 전세계의 변화는 이러한 경제철학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기업이익 비율은 198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다[그림 3].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른바 '공급주의 경제'의 철학에 역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을 비롯한 주요 기업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고 무분별한 규제 완환에 대한 반작용도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세금인상도 추진되고 있다.

Fiscal cliff와 관련한 이슈에서도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세금인상을 비롯한 정책의 변화가 미국의 '기업가주의' 정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이다. 주식시장은 기업이익의 함수이다. 그렇다면 기업의 경쟁력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공급주의 경제' 철학의 후퇴를 주식시장의 장기적인 악재로 판단해야 할까? 특히 세금 인상이 이러한 장기적 악재의 트리거로 작용하는 요인이 될 것인가?

[그림 3] 미국 기업이익 추이와 지난 30년간 주요 경제적 흐름 정리



자료: Federal Reserve,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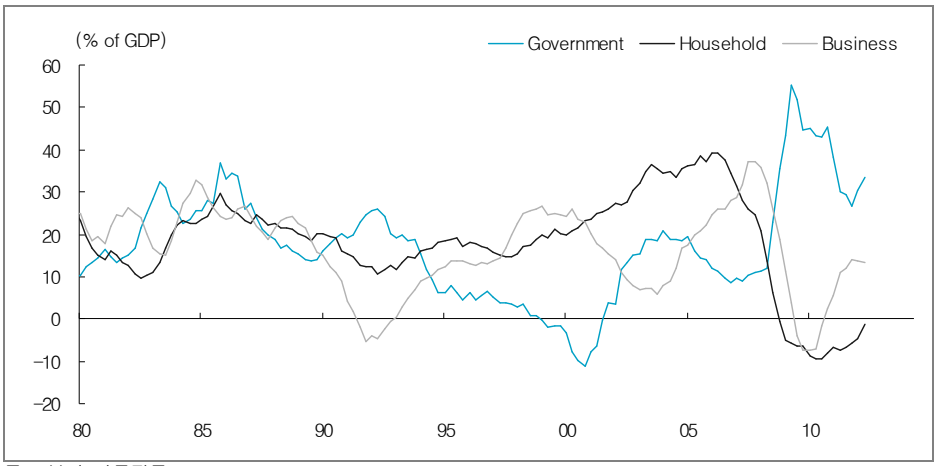
이에 대해 필자는 이러한 변화는 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오히려 지금은 1980년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공급사이드보다 수요사이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긍정적인 것이라고 판단한다.

1980년대 특히 미국은 기업의 경쟁력이 문제였다. 미국 기업들은 양질의 재화를 생산하지 못했고 파업은 일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수요가 문제이고 기업 사이드는 매우 양호하다. 따라서 세금인하 등 '공급주의 경제'의 정책으로 얻을 수 있는 한계효용은 한계에 도달했고 대신 수요를 어떻게 창출하느냐가 핵심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어떠한 형태의 세금인상도 반대해온 공화당보다 세금인상과 정부지출 축소를 결합하여 정부부채를 줄이자는 민주당의 방안이 현재의 시대정신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은 가장 양호한 형태의 디레버리징(The most beautiful deleveraging: Ray Dalio)을 보이고 있다. 과거의 디레버리징, 예를 들어 1990년 이후 일본의 경우 디레버리징을 주도하는 주체의 부채 상환 과정이 20년 이상 지속된 반면 미국의 가계와 기업의 신용 수요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이는 민간의 자생적 성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 아니라 정부가 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다양한 선택권을 갖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림 4] 미국: The Most Beautiful Deleverag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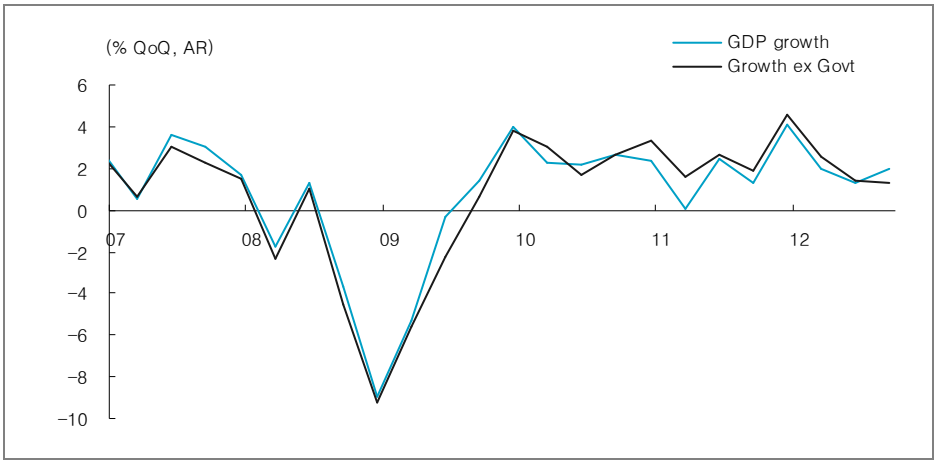
주: 4분기 이동평균
자료: Federal Reserve, 한국투자증권

■ Black Friday

11월 29일에 지난 3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수정 발표된다. 1차로 발표되었을 때 2%(QoQ, 연환산) 였는데 이 수치가 2.8%로 가파르게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뒤늦은 지표임에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성장률이 상향조정되는 이유가 순수출 및 재고 등 주로 민간부문의 활동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지난 3분기 성장률은 정부 기여도를 제거하고 살펴보면 1.3%로 2009년 3분기 이후 가장 낮았다. 이를 두고 미국의 자생적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큰 폭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미국의 자생적 성장이 오히려 지난 2분기를 저점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그림도 가능해졌다.

[그림 5] 미국 GDP 성장률과 정부제외 성장률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단기적으로 자생적 성장에 대한 시각을 결정하는 관건은 연말 소비의 결과가 될 것이다. 매년 연말이 되면 언제나 미국 쇼핑시즌의 결과에 대해 주목하지만 올해 우리가 연말 소비를 바라보는 관점은 좀더 특이하다. 부동산 시장이 2005년 이후 처음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미국 가계의 부채 조정 역시 지난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일단락 되고 있다는 점 등 구조적인 변수의 변화가 반영되는 첫 해이기 때문에 미국 소비의 결과를 주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분간 블랙프라이데이 등 미국의 소비 결과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몇가지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첫째, 블랙프라이데이의 경계가 약화되고 있다. 미국소매협회(National Retal Federation)의 회장 Matthew Shay는 올해는 추수감사절 직후부터 소매업체들이 할인판매에 들어가고 이미 고객들로 매장이 붐비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둘째, 온라인 쇼핑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이것은 구조적인 소비패턴의 변화로 비단 연말 쇼핑시즌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연말소비 결과를 봐도 온라인 쇼핑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예: 아마존 블랙프라이데이 매출이 38% 증가).

결론적으로 올해 연말쇼핑 시즌 결과를 파악할 때 유의할 점은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기준, 예를 들어 '블랙프라이데이 당일 매출 결과'의 유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쇼핑 시즌 전반의 분위기와 결과를 통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추수감사절 이후 블랙프라이데이까지 이어진 쇼핑 시즌의 초기 결과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S&P500 Retail 인덱스는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고 NRF는 올해 연말 쇼핑 규모를 5,860억 달러(+4.1% YoY)로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6] 미국 S&P500 소매업종 지수

자료: Decisionpoint, 한국투자증권

이머징마켓팀 ☎ 02-3276-6234

정책 및 경기회복 기대로 중국 증시 반등

▶ 중국 리커창 부총리, 2020년 소강사회 실현 가능성 및 개혁 중요성 언급
▶ HSBC 제조업PMI 반등으로 경기회복 기대 강화
▶ 홍콩, HSBC 교통은행 지분 매각설 부인, 교통은행과 장기적 전략협력 지속 방침

■ 중국 시장

상해증시 하루 만에 반등
양조, 금융, 여행, 전력 등 업종 상승세 주도
가전, 환경과 식품주 약세

상해종합지수가 하루 만에 다시 반등했다. 거래량은 300억위안대로 계속 부진했다. 리커창 국무원 부총리가 7%의 성장으로 소강(小康)사회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발언해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개혁이 향후 중국경제의 성장 원동력 될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구조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유익할 것이라는 평가다. HSBC 제조업 PMI가 경기분기점 이상으로 반등함에 따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그러나 IPO재개와 차스닥 보호예수 해지물량에 대한 우려와 경기 반등이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돼 지수 상승폭은 제한됐다. 업종별로는 최근 플라스티사이저 첨가 파문을 겪은 양조업종이 큰 폭으로 반등했고 금융(+0.6%), 여행(+0.6%), 전력(+0.6%), 제지(+0.5%)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가전(-0.3%), 환경보호(-0.2%), 식품(-0.1%) 등 업종은 약세를 나타냈다.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1.1% 상승
은행, 보험, 건자재 등 큰 폭 상승, 자동차주 반락, 건설과 전력주 약세

홍콩H지수도 1% 넘게 상승해 나흘 연속 강세를 나타냈다. 본토민의 해외직접투자가 조만간 허용될 것이며 본토 민간자본이 홍콩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호재로 작용했다. 26일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합의 가능성, 유로존 PMI 개선 등도 우호적 영향을 미쳤다. HSBC가 교통은행 지분 매각설을 공식 부인하면서 은행주가 큰 폭으로 올랐다. 보험, 건자재, 석탄 등의 강세도 두드러졌다. 반면 연속 3거래일 급등했던 자동차 관련주는 약세로 돌아섰고 철도건설주와 전력주는 내림세를 나타냈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 분	11/23(금)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027.38	0.58	0.63	-2.01	-7.82
홍콩 H	10,606.99	1.10	3.56	0.24	6.75
인도 SENSEX	18,415.00	-0.55	0.58	-0.49	19.15
러시아 RTS	1,424.75	0.34	3.54	-0.64	3.10
브라질 보베스파	56,436.97	0.35	-1.82	-1.11	-0.56
베트남 VN	381.71	-0.39	-1.04	-1.73	8.58
MSCI 이머징마켓	985.72	0.50	1.64	-0.97	7.57

주: 23일 오후 5시 50분 기준

신은영(eunyoung@truefriend.com) ☎ 02-3276-6261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세로 코스피 1,910P선 회복

- 추수감사절을 맞아 미국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코스피는 소폭 오름세로 출발. 장 초반 관망세 속 혼조세를 보인 주가는 개인의 매도세로 하락 전환하기도 하였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강화되며 상승폭을 확대, 1,910P선을 회복하며 마감. 코스닥은 기관과 개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수 상승폭을 제한하며 500P선 탈환에 실패, 소폭 오름세로 마감.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자업종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주가 상승세를 주도했으며, 대만증시가 3% 이상 급등한 가운데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냄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닷새 연속 상승하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내년도 삼성전자의 스마트기기 출하량 증가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부각된 삼성전기가 강세를 보임. 러시아 석유회사와의 대규모 원유 판매 계약 소식에 테라리소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자회사 호재로 모기업인 예당 또한 상한가를 기록. 중국 내수 시장 성장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부각된 차이나킹은 저평가 메리트가 더해지며 급등. 또한 최근 원화강세, 연비과장 이슈 등으로 약세를 보인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량이 견조할 것으로 전망되며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 관련 부품주들의 강세도 두드러짐. 반면, 객실 보수 공사에 따른 휴업 소식에 호텔신라가 하락세를 보였으며, 신주 상장을 앞둔 하이스틸은 기관의 공매도에 하한가를 기록

종목/테마	내 용
삼성전기(009150) ▶103,500(+4.76%)	**스마트기기 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강세** -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에 따른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출하량 증가의 최대 수혜주로 평가되며 강세 - 스마트폰 부품의 성장세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 주가는 저평가 상태라는 분석 또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
테라리소스(053320) ▶1,615(상한가)	**러시아 업체와 원유 판매계약 소식에 상한가** - 가스프롬과 함께 러시아 2대 석유회사인 루크오일의 원유 구매대행회사인 가스트레이드사와 약 517억원 규모의 대규모 원유 판매 계약 소식에 상한가 - 이번 공급계약 규모는 지난해 매출액의 약 14배에 해당되는 규모. 모기업인 예당(049000)도 동반 상한가를 기록
차이나킹(900120) ▶3,280(+5.81%)	**중국 내수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및 공모가 회복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 - 중국 내수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되는 가운데 기존 건강식품과 동충하초 유통 사업부의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신사업 성장 기대감으로 견조한 오름세 - 현재 주가는 연초 대비 30% 정도 상승했으나 공모가를 하회하는 수준이며, 올해 사업연도 기준 주가수익비율 3.1배 수준으로 절대적 저평가 상태라는 분석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그룹의 해외 판매 기대감에 강세** - 연비 오기 이슈로 미국시장 판매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11월 현대차그룹의 판매 예상치가 견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며 자동차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 넥센타이어(002350, +7.49%), 한국타이어(161390, +5.60%), 동현대차(005380, +3.10%), 기아차(000270, +2.87%)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오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훈석(hunseog@truefriend.com) ☎ 02-3276-6232

단기 유망종목: 동일금속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동일금속 (109860)	14,000 (+6.1)	13,200 (11/20)	- 크롤러크레인 트렉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국내외 경기둔화에도 불구 제품다변화를 통해 2012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전망 - 글로벌 광산 개발투자 확대에 따른 초대형 굴삭기 투랙슈 수요 증가세 지속 전망 독창적 아이템으로 가격 경쟁력, 일괄공정체계로 원가경쟁력
엠케이전자 (033160)	4,465 (+6.7)	4,185 (11/02)	- 최근 본딩와이어 시장은 비용부담이 큰 골드(Gold)본딩와이어의 대체품으로 구리를 사용한 본딩와이어(PCC; Pd Coated Copper Wire)가 개발돼 시장 구조의 변화가 진행 중임, 동사는 글로벌 구리본딩와이어 시장에서 일본 NMC사에 이어 M/S 2위 기록 중 - 현재 구리본딩와이어는 대만 패키지 업체들로 주로 공급되고 있으나, 향후 국내 칩메이커들로도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PCC의 매출 확대로 인해 2%대에 불과하던 영업이익률은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로엔 (016170)	13,650 (-5.5)	14,450 (11/02)	- 2013년 음원가격 상승으로 멜론 서비스의 가입자당 매출액(ARPU) 증가와 함께 SKT와의 공동 마케팅으로 인한 가입자 증가에 따른 성장성 부각 가능성 - 저작권 보호, 컨텐츠 수요 확대 등 우호적인 산업, 보유 아티스트 라인업 확대, 수직 계열화된 사업부문의 경쟁력, 경쟁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 등을 주목할 필요
CJ E&M (130960)	28,700 (+0.5)	28,550 (10/19)	- 모바일 기기 확산과 유통채널 다양화로 인해, 고성장이 예상되는 컨텐츠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게임, 영화, 방송, 음악 및 공연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안정적인 성장동력을 내재 -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나, 신규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출시, 방송 부문의 프로그램 경쟁력, 다수의 영화 라인업, 비용 통제 등을 감안할 때 4분기 실적 개선 기대 유효
골프존 (121440)	62,400 (+11.4)	56,000 (10/18)	- 스크린골프 라운딩수 증가와 유료라운딩율 상승으로 네트워크 매출 호조, 신제품 골프시뮬레이터 비젼의 양호한 매출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 또한 골프존 아카데미, 골프존 마켓 등 기존 신규 사업 외에 무료 필드 부킹과 디지털 캐디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추가 수익원 발굴 노력을 주목할 필요
농심 (004370)	264,000 (-3.6)	274,000 (10/10)	- 흰국물 라면의 퇴조, 적극적 신제품 출시 효과, 시장경쟁 완화, 경쟁사의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3분기 라면시장 점유율은 66.1%(2분기 63.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 영업이익 개선 모멘텀 재개 예상 - 프리미엄 라면을 중심으로 한 라면시장의 성장 가능성, 고가품 비중 확대, 이익 가시성 강화, 규제 리스크 완화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상승 여력 상존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골프존 발행주식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업무를 수행한 증권사 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정훈석(hunseog@truefriend.com) ☎ 02-3276-6232

중장기 유망종목: LS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2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LS (006260)	92,600 (+5.8)	87,500 (11/20)	12,291	574	234	8,410	11.0
			– 2013년에는 LS전선과 LS산전의 실적 개선 예상. LS전선은 고수익 제품인 해저전력선의 해외 프로젝트가 실적에 반영되고 중동 초고압 전력선의 호황기 진입에 따른 실적 개선 예상 – 또한 LS산전은 이라크를 필두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확대, 신규 사업 적자 축소 등으로 영업이익 개선 예상. LS니꼬동제련도 도시광산 자회사의 성장으로 이익 증가 전망				
삼영이엔씨 (065570)	7,280 (+0.6)	7,240 (11/07)	46	11	9	1,023	7.1
			– 방산부문의 안정적인 수요, 선박안전 관련 규제 강화(Solas협약. 어선법), 일본 및 중국으로의 수출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예상 –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세, 20%를 상회하는 영업이익률, 안정적인 재무구조, 우호적인 시장 환경 등을 감안할 때 리레이팅 가능성 상존				
삼성전자 (005930)	1,437,000 (+10.6)	1,299,000 (10/30)	203,704	28,800	22,831	151,499	9.5
			– 갤럭시S3의 판매 호조에 따른 스마트폰 판매 증가 및 이익률 상승으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 최근 갤럭시노트10.1의 호평에 힘입어 태블릿의 경쟁력 부각 – 휴대폰 부문의 캐시카우 역할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실적 개선 본격화로 2013년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NHN (035420)	265,500 (+2.1)	260,000 (10/23)	2,377	633	503	11,428	23.2
			–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높은 검색 점유율 유지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인 '라인(LINE)' 의 일본 등 해외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로 중장기 성장원 확보 – 위닝일레븐 온라인 등 신규 대작 게임들의 출시로 웹보드게임 부진을 만회할 전망				
KCC (002380)	281,000 (+0.7)	279,000 (9/27)	3,434	225	696	70,906	4.0
			– 금년 하반기부터 주택 입주량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함에 따라 이익의 Down-side Risk 완화. 전략적 지분 매입을 통한 Captive market(올해 1월에는 에버랜드 주식 매입)을 확보하고 있어 경쟁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 안정성 확보 – 전방산업의 업황 바닥 통과 가능성, 수직 계열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 이익 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LG화학 (051910)	301.000 (-7.7)	326,000 (9/17)	24,006	2,177	1,627	22,136	13.6
			– 업황 부진에도 불구, 다각화된 사업구조와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으로 안정적인 이익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LCD용 유리기판, 2차전지 등 장기 성장성을 주목할 필요 –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 개선, 정보전자소재 및 전지 제품의 판매량 증가 등으로 3분기에는 실적 개선 기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전자, LG화학, NHN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이수정 (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1/16(금)	11/19(월)	11/20(화)	11/21(수)	11/22(목)	11/23(금)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860.83	1,878.10	1,890.18	1,884.04	1,899.50	1,911.33
	등락폭		-9.89	17.27	12.08	-6.14	15.46	11.83
	등락종목	상승(상한)	241(5)	603(6)	484(3)	271(4)	439(4)	402(2)
		하락(하한)	585(2)	237(1)	340(0)	549(0)	365(2)	405(1)
	ADR		75.36	79.59	81.58	80.42	82.29	87.53
	이격도	10 일	97.89	98.96	99.79	99.75	100.65	101.24
		20 일	97.61	98.68	99.41	99.17	100.05	100.62
	투자심리		30	40	40	30	40	50
	거래량	(백만 주)	459	346	368	372	408	324
	거래대금	(십억 원)	3,988	3,204	3,663	3,894	3,691	3,536
코스닥	코스닥지수		482.99	493.14	496.66	492.19	497.03	498.82
	등락폭		-10.85	10.15	3.52	-4.47	4.84	1.79
	등락종목	상승(상한)	218(6)	724(10)	558(12)	314(7)	558(10)	468(10)
		하락(하한)	735(9)	218(4)	375(7)	631(6)	372(6)	456(1)
	ADR		74.44	78.26	80.09	78.76	82.42	87.78
	이격도	10 일	94.60	97.01	98.11	97.73	99.12	99.90
		20 일	94.44	96.71	97.66	97.09	98.25	98.67
	투자심리		60	60	60	50	50	50
	거래량	(백만 주)	465	391	428	405	468	410
	거래대금	(십억 원)	2,239	1,574	1,897	1,774	1,762	1,711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765.9	828.0	939.0	161.1	110.7	241.3	51.7	27.3	217.5	41.4
	매도	1,965.8	667.3	888.8	171.0	136.9	216.7	25.8	31.4	157.0	52.2
	순매수	**-199.9**	**160.7**	**50.1**	**-9.9**	**-26.2**	**24.6**	**25.9**	**-4.1**	**60.5**	**-10.9**
	11 월 누계	**-335.9**	**-377.1**	**893.7**	**36.5**	**20.2**	**155.0**	**45.3**	**34.2**	**576.1**	**-180.7**
	12 년 누계	-11,413.0	13,300.8	2,949.1	1,620.3	2,582.6	-4,937.9	24.0	452.0	2,816.6	-4,836.9
코스닥	매수	1,545.6	54.1	117.5	18.5	13.8	40.3	4.9	5.9	29.5	15.4
	매도	1,540.5	71.1	101.2	19.0	8.5	40.4	10.1	5.4	15.6	19.8
	순매수	**5.2**	**-17.0**	**16.2**	**-0.6**	**5.4**	**-0.1**	**-5.2**	**0.5**	**13.9**	**-4.4**
	11 월 누계	**55.3**	**-85.3**	**168.6**	**40.6**	**9.1**	**106.6**	**-57.7**	**4.1**	**57.0**	**-138.6**
	12 년 누계	1,148.0	29.2	-324.2	92.9	90.1	-507.7	-253.0	-34.3	278.7	-853.1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신			
순매수		순매도	
전기,전자	37,190	전기가스업	-9,786
통신업	18,033	철강및금속	-9,050
유통업	11,703	운수장비	-8,883
삼성전자	16,058	한국가스공사	-10,943
KT	10,539	호남석유	-7,701
KODEX 200	9,635	고려아연	-7,354
NHN	9,607	KCC	-3,600
삼성전기	8,024	LG	-3,559

연기금			
순매수		순매도	
전기,전자	68,129	화학	-11,789
유통업	19,164	철강및금속	-5,030
제조업	2,431	기계	-3,483
삼성전자	69,147	호남석유	-6,250
삼성물산	9,388	기아차	-6,248
현대차	6,237	삼성SDI	-5,870
LG전자	6,025	현대제철	-5,519
삼성전자우	4,140	삼성테크윈	-5,513

(체결기준: 백만원)

은행			
순매수		순매도	
보험	801	전기,전자	-5,476
철강및금속	667	유통업	-4,010
화학	578	음식료품	-645
삼성물산	2,421	삼성전기	-7,197
삼성전자	1,288	롯데쇼핑	-5,759
KT	975	TIGER 200	-1,805
LG전자	868	NHN	-1,115
현대차	850	KODEX 200	-978

보험			
순매수		순매도	
건설업	3,370	운수장비	-8,318
유통업	2,419	운수창고	-2,393
제조업	2,268	화학	-2,009
SK하이닉스	5,261	LG전자	-11,947
삼성전기	4,578	기아차	-3,954
현대건설	3,419	삼성전자	-3,937
LG이노텍	3,100	POSCO	-1,900
롯데쇼핑	2,954	현대중공업	-1,883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관			
순매수		순매도	
전기,전자	150,323	전기가스업	-10,611
서비스업	36,424	철강및금속	-8,185
통신업	29,882	운수창고	-4,952
삼성전자	131,409	KODEX 인버스	-20,972
KODEX 레버리지	74,704	호남석유	-17,951
현대차	25,942	한국가스공사	-14,061
KT	17,669	LG전자	-13,912
NHN	15,259	기아차	-10,795
삼성물산	10,543	삼성테크윈	-6,734
KT&G	10,371	POSCO	-6,189
현대건설	10,244	KCC	-4,760
삼성전기	9,126	현대위아	-4,452
SK하이닉스	9,097	대한항공	-4,354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전기,전자	12,779	서비스업	-16,684
철강및금속	11,015	통신업	-14,238
유통업	8,485	건설업	-10,131
기아차	22,606	현대차	-35,595
현대위아	17,061	NHN	-11,391
삼성전기	15,412	현대건설	-8,503
LG전자	11,960	현대중공업	-7,906
삼성물산	10,027	디아이	-6,995
POSCO	9,836	SK텔레콤	-6,768
호남석유	8,677	KT	-6,520
삼성화재	4,023	삼성전자	-6,499
한라공조	3,325	LG생활건강	-6,134
대우인터내셔널	3,197	아모레퍼시픽	-5,544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신			
순매수		순매도	
출판,매체복제	3,752	기계,장비	-1,491
소프트웨어	2,685	IT부품	-1,147
사업지원	2,411	반도체	-945
에스엠	3,506	네패스	-1,235
골프존	2,501	제이브이엠	-1,083
CJ오쇼핑	2,037	컴투스	-884
하나투어	1,861	JCE	-698
위메이드	1,390	서울반도체	-697

연기금			
순매수		순매도	
화학	1,008	금속	-2,417
소프트웨어	909	반도체	-1,908
사업지원	832	디지털컨텐츠	-1,541
에스맥	1,769	실리콘웍스	-2,080
제이브이엠	1,009	태광	-2,028
잉크테크	896	게임빌	-1,305
씨티씨바이오	799	이엘케이	-809
휴비츠	790	멜파스	-797

(체결기준: 백만원)

은행			
순매수		순매도	
사업지원	388	반도체	-1,958
의료,정밀기기	323	통신장비	-336
IT부품	264	음식료,담배	-238
하나투어	383	시그네틱스	-1,868
CJ오쇼핑	339	코아크로스	-370
뷰웍스	283	매일유업	-314
이엘케이	244	서울반도체	-190
JCE	185	게임빌	-151

보험			
순매수		순매도	
반도체	2,094	화학	-1,253
전문기술	1,346	제약	-268
금속	1,297	기계,장비	-224
서울반도체	2,123	에이블씨엔씨	-1,257
인터파크	1,439	심텍	-453
포스코엠텍	1,436	덕산하이메탈	-319
골프존	1,223	이엘케이	-296
에스맥	963	이라이콤	-233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관			
순매수		순매도	
소프트웨어	7,364	디지털컨텐츠	-1,426
방송서비스	5,351	기계,장비	-1,303
출판,매체복제	4,132	화학	-1,053
골프존	6,035	시그네틱스	-2,186
CJ오쇼핑	5,105	실리콘웍스	-2,166
에스엠	3,886	크루셜엠스	-2,039
하나투어	3,105	태광	-1,952
에스맥	2,277	게임빌	-1,932
루멘스	1,987	에스에프에이	-1,645
덕산하이메탈	1,939	에이블씨엔씨	-1,559
휴비츠	1,832	네패스	-1,130
성우하이텍	1,644	컴투스	-1,078
포스코엠텍	1,624	이엘케이	-999

외국인			
순매수		순매도	
출판,매체복제	3,319	제약	-3,991
소프트웨어	2,586	디지털컨텐츠	-3,967
화학	2,496	방송서비스	-3,680
에스엠	3,324	셀트리온	-4,385
에이블씨엔씨	1,435	게임빌	-3,015
파트론	1,229	CJ오쇼핑	-3,003
KG이니시스	1,174	하나투어	-1,330
매일유업	1,113	서울반도체	-1,178
파라다이스	1,006	컴투스	-697
플렉스컴	747	GS홈쇼핑	-694
위메이드	734	JCE	-564
골프존	706	메디톡스	-522
경동제약	610	네오위즈인터넷	-436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SK	18 일	CJ제일제당	15 일
SK텔레콤	18 일	삼성SDI	7 일
아세아시멘트	17 일	두산인프라코어	7 일
KODEX 200	16 일	율촌화학	6 일
종근당	11 일	롯데쇼핑	6 일
KPX화인케미칼	11 일	세아제강	5 일
LG유플러스	11 일	삼광유리	5 일
한국단자	10 일	대우인터내셔널	5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트레이드증권	17 일	SDN	10 일
루멘스	12 일	매일유업	7 일
CJ오쇼핑	11 일	씨앤케이인터	7 일
STS반도체	8 일	현진소재	7 일
인터파크	5 일	에스에프에이	5 일
하나투어	5 일	에이테크솔루션	5 일
에스엠	5 일	비에이치아이	5 일
평화정공	5 일	평화정공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261,632	삼성전자	138,199
KODEX 레버리지	142,125	현대위아	30,465
KODEX 200	61,573	삼성전기	21,503
NHN	51,443	호남석유	16,565
SK텔레콤	30,131	삼성SDI	15,453
SK	21,286	CJ제일제당	13,247
GS	21,104	삼성물산	10,836
현대건설	20,430	대우인터내셔널	10,486

KOSDAQ			
기 관		외 국 인	
실리콘웍스	32,209	에스엠	10,934
컴투스	20,104	파라다이스	5,606
에스엠	17,735	매일유업	4,370
골프존	14,543	실리콘웍스	3,521
CJ오쇼핑	7,530	이라이콤	3,264
하나투어	5,270	에이블씨엔씨	2,839
에스맥	5,123	세코닉스	2,394
루멘스	4,932	차바이오앤	2,072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150,323	12,779	163,102
유통업	24,334	8,485	32,819
의약품	3,782	929	4,711
삼성전기	9,126	15,412	24,539
삼성물산	10,543	10,027	20,571
LG디스플레이	5,993	563	6,556
SK	4,664	1,693	6,358
롯데쇼핑	3,047	2,431	5,478
유나이티드제약	5,289	76	5,365
삼성화재	1,335	4,023	5,358
S-Oil	4,109	982	5,091
KODEX 200	3,622	994	4,616
스카이라이프	2,123	1,287	3,410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소프트웨어	7,364	2,586	9,950
출판,매체복제	4,132	3,319	7,451
IT부품	1,581	2,203	3,784
에스엠	3,886	3,324	7,210
골프존	6,035	706	6,741
에스맥	2,277	178	2,455
KG이니시스	1,274	1,174	2,448
위메이드	1,583	734	2,318
루멘스	1,987	158	2,145
덕산하이메탈	1,939	104	2,043
휴비츠	1,832	84	1,916
AP시스템	1,170	502	1,671
파라다이스	625	1,006	1,632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한진해운홀딩스	31 일	SK텔레콤	25 일
삼성카드	20 일	고려제강	14 일
두산인프라코어	15 일	쌍용양회	14 일
무림P&P	13 일	삼성카드	13 일
동부제철	13 일	에스엘	7 일
동국제강	11 일	신한지주	7 일
현대증권	9 일	케이피케미칼	7 일
대한유화	9 일	경방	6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동국산업	21 일	KCC건설	12 일
파트론	10 일	동서	10 일
심텍	8 일	KH바텍	9 일
우주일렉트로	6 일	태광	5 일
KCC건설	5 일	포스코엠텍	4 일
에이블씨엔씨	5 일	태산엘시디	4 일
포스코켐텍	4 일	서울반도체	4 일
태광	4 일	오스템임플란트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기아차	-68,077	LG전자	-49,280
KODEX 인버스	-41,210	KODEX 200	-49,261
호남석유	-25,607	삼성카드	-35,497
현대모비스	-24,002	SK텔레콤	-29,162
LG전자	-20,788	GS	-20,977
휠라코리아	-18,123	신한지주	-20,639
엔씨소프트	-16,995	현대차	-19,251
LG화학우	-10,943	대우조선해양	-15,053

KOSDAQ

기 관		외 국 인	
태광	-5,842	컴투스	-7,653
웹젠	-2,470	CJ오쇼핑	-4,030
에이블씨엔씨	-2,368	서울반도체	-3,821
바이오랜드	-2,340	인탑스	-3,374
이라이콤	-2,263	루멘스	-2,194
시그네틱스	-2,067	이노칩	-2,114
크루셜엠스	-1,995	씨티씨바이오	-2,095
이엘케이	-1,934	메디톡스	-2,039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가스업	-10,611	-2,557	-13,168
의료정밀	-8	-6,840	-6,848
운수창고	-4,952	-1,298	-6,251
현대중공업	-3,587	-7,906	-11,493
삼성카드	-3,186	-4,913	-8,099
한진해운	-3,643	-3,337	-6,980
KCC	-4,760	-1,162	-5,922
현대제철	-2,888	-329	-3,217
LIG손해보험	-2,702	-162	-2,864
빙그레	-2,246	-579	-2,824
LG패션	-1,585	-40	-1,625
케이피케미칼	-1,024	-435	-1,459
CJ	-757	-628	-1,386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디지털컨텐츠	-1,426	-3,967	-5,393
소매	-309	-72	-381
금융	-1	-17	-17
게임빌	-1,932	-3,015	-4,947
셀트리온	-151	-4,385	-4,536
실리콘웍스	-2,166	-175	-2,340
태광	-1,952	-287	-2,239
컴투스	-1,078	-697	-1,775
JCE	-637	-564	-1,201
이엘케이	-999	-185	-1,184
유아이디	-542	-128	-670
오스템임플란트	-270	-312	-582
이오테크닉스	-459	-23	-482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종 목	주 수	금 액
KODEX 200	541	13,541	셀트리온	83	2,140
POSCO	40	12,179	에스에프에이	26	1,079
삼성전자	7	9,827	미래나노텍	40	498
LG전자	84	6,443	나우콤	39	418
한진해운	654	6,276	메디톡스	5	409
SK하이닉스	230	5,868	시그네틱스	115	372
롯데쇼핑	15	5,369	게임빌	2	327
NHN	19	5,011	네오위즈인터넷	20	26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802	5,387,393	셀트리온	29,280	745,169
LG전자	44,680	3,453,736	서울반도체	5,978	133,308
POSCO	9,599	2,966,165	게임빌	467	64,257
OCI	9,781	1,437,848	에스엠	1,245	56,881
현대차	5,690	1,194,831	덕산하이메탈	2,703	52,040
NHN	3,486	913,431	위메이드	936	47,635
SK하이닉스	29,234	748,402	에이블씨엔씨	502	41,786
오리온	555	612,008	파라다이스	1,859	38,94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KOSDAQ			
순 증		순 감		순 증		순 감	
운수창고	4,587	전기,전자	-1,479	종합건설	1,991	의료,정밀기기	-967
화학	2,981	음식료품	-849	IT부품	1,440	교육	-943
유통업	1,795	보험	-518	제약	1,406	출판,매체복제	-329
한진해운	3,627	SK하이닉스	-2,222	서희건설	1,556	에듀박스	-947
웅진케미칼	1,472	LG디스플레이	-1,826	텍셀네트컴	1,171	솔고바이오	-841
LG전자	1,436	동국제강	-932	셀트리온	1,092	루멘스	-400
삼익악기	761	하이트진로	-742	한국토지신탁	687	에스엠	-330
대창	726	LG	-450	서한	450	네오퍼플	-180
케이피케미칼	540	외환은행	-428	동국S&C	217	오스템임플란트	-161
삼성중공업	491	한화생명	-387	인터파크	202	포스코 ICT	-90
롯데쇼핑	471	영진약품	-340	씨티씨바이오	165	HRS	-84
두산인프라코어	454	신한지주	-339	한글과컴퓨터	154	플렉스컴	-82
현대상선	394	삼성증권	-316	STS반도체	153	컴투스	-8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1/19(월)	11/20(화)	11/21(수)	11/22(목)	11/23(금)
외국인	13,300.8	-377.1	201.9	-133.1	52.8	160.6	-39.1	160.7
기관계	2,949.1	893.7	454.2	166.6	55.9	-80.1	261.7	50.1
(투신)	-4,937.9	155.0	54.3	1.3	22.0	-32.2	38.6	24.6
(연기금)	2,936.2	560.4	65.0	-5.6	-5.9	-48.1	63.6	61.0
(은행)	452.0	34.2	-15.9	1.0	1.7	-6.8	-7.7	-4.1
(보험)	2,582.6	20.2	-41.4	4.3	6.2	-18.8	-6.9	-26.2
개인	-11,413.0	-335.9	-683.9	-38.8	-127.3	-100.4	-217.5	-199.9
기타	-4,836.9	-180.7	27.7	5.2	18.6	19.9	-5.1	-10.9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11/16(금)	11/19(월)	11/20(화)	11/21(수)	11/22(목)
KOSPI	1,682.77	2,051.00	1,825.74	1,860.83	1,878.10	1,890.18	1,884.04	1,899.50
고객예탁금	12072.0	14068.5	17680.2	17128.4	16817.5	16780.7	16781.0	16549.2
(증감액)	2735.7	1996.5	3611.7	-712.6	-310.9	-36.8	0.3	-231.8
(회전율)	52.6	51.5	34.2	36.9	29.1	33.7	34.6	33.5
실질예탁금 증감	-292.5	-3502.6	3775.5	-727.5	-201.0	73.3	-40.0	-339.2
신용잔고	4359.5	5938.3	4476.3	4489.4	4447.2	4397.9	4366.2	4351.6
미수금	240.2	192.3	187.7	153.8	148.2	168.9	136.3	127.7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1/16(금)	11/19(월)	11/20(화)	11/21(수)	11/22(목)
전체 주식형	95,887	-6,721	160	27	43	48	16	78
(ex. ETF)		-9,197	-120	41	6	45	8	58
국내 주식형	68,995	-3,589	310	48	54	11	26	67
(ex. ETF)		-6,067	27	62	18	7	17	47
해외 주식형	26,892	-3,132	-150	-20	-12	37	-10	11
(ex. ETF)		-3,131	-147	-20	-12	37	-10	11
주식 혼합형	10,367	-1,477	1	64	-35	-7	-5	21
채권 혼합형	19,421	1,393	618	6	125	-2	-8	-15
채권형	45,986	1,586	823	-65	-57	43	89	38
MMF	77,582	23,035	2,751	1,325	-94	-165	25	-50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1/19(월)	11/20(화)	11/21(수)	11/22(목)	11/23(금)
한 국	11,898	-344	1,152	-122	49	148	-36	149
대 만	1,782	38	964	32	50	-169	54	427
인 도	19,066	965	570	125	32	48	-	-
인도네시아	1,663	-356	366	-21	-13	-22	15	-
태국	1,688	140	407	-38	-38	4	472	-
남아공	-952	317	8	-76	29	16	-122	-
필리핀	2,182	209	161	0	9	146	7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1년	11/16(금)	11/19(월)	11/20(화)	11/21(수)	11/22(목)	11/23(금)
회사채 (AA-)	4.21	3.30	3.32	3.33	3.33	3.35	3.37
회사채 (BBB-)	10.01	8.68	8.70	8.71	8.71	8.73	8.75
국고채 (3년)	3.34	2.77	2.79	2.80	2.80	2.82	2.84
국고채 (5년)	3.46	2.84	2.86	2.87	2.87	2.89	2.91
국고채 (10년)	3.79	2.96	2.98	2.99	2.99	3.01	3.03
미 국채 (10년)	1.88	1.58	1.61	1.67	1.68	-	-
일 국채 (10년)	0.99	0.73	0.74	0.74	0.74	0.74	-
원/달러	1,151.80	1,092.20	1,087.90	1,082.20	1,083.20	1,085.90	1,086.10
원/엔	1,492.00	1,348.00	1,338.00	1,332.00	1,320.00	1,316.00	1,323.00
엔/달러	77.24	81.03	81.28	81.26	82.06	82.52	82.13
달러/유로	1.29	1.27	1.27	1.27	1.27	1.28	1.28
DDR3 1Gb (1333MHz)	0.64	0.64	0.64	0.64	0.64	0.64	-
NAND Flash 16Gb (MLC)	2.81	1.89	1.89	1.89	1.89	1.89	-
CRB 지수	305.30	293.56	298.35	296.51	297.59	-	-
LME 지수	3,306.0	3,269.4	3,342.9	3,338.8	3,295.1	3,305.0	-
BDI	1,738	1,036	1,054	1,066	1,073	1,084	-
유가 (WTI, 달러/배럴)	98.83	86.92	89.28	86.75	87.38	-	-
금 (달러/온스)	1,566.80	1,714.70	1,734.40	1,723.60	1,728.80	1,726.5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

안혁(ray.ahn@truefriend.com) ☎ 02-3276-6272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최근월물	베이시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KOSPI200	1212월물	이론	마감	평균			증감
11월 19일	245.82	246.50	0.46	0.68	0.44	153,106	102,895	-3,485
11월 20일	247.72	248.30	0.44	0.58	0.40	130,331	102,279	-616
11월 21일	247.02	247.15	0.42	0.13	0.36	181,245	101,719	-560
11월 22일	249.51	249.95	0.41	0.44	0.50	135,451	100,333	-1,386
11월 23일	251.44	251.90	0.41	0.46	0.45	127,130	101,606	1,273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11월 19일	4,608	-1,661	-3,388	-2,114	194	164	-31	-1
11월 20일	1,482	-1,575	106	567	-528	101	130	0
11월 21일	-2,497	2,402	116	553	-236	-20	-67	0
11월 22일	4,379	-1,119	-3,400	-1,372	-181	-85	16	0
11월 23일	1,364	-890	-454	215	-558	-117	-120	0
누적포지션	-14,298	4,391	9,332	3,338	7,945	-1,311	-1,369	762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11월 19일	455	742	287	431	558	127	24	184	160	6,187	9,909
11월 20일	578	601	23	485	482	-3	92	119	26	6,164	9,912
11월 21일	565	705	140	503	627	124	62	78	16	6,164	9,926
11월 22일	392	657	265	375	461	87	17	195	179	6,128	10,071
11월 23일	467	559	92	391	476	85	76	83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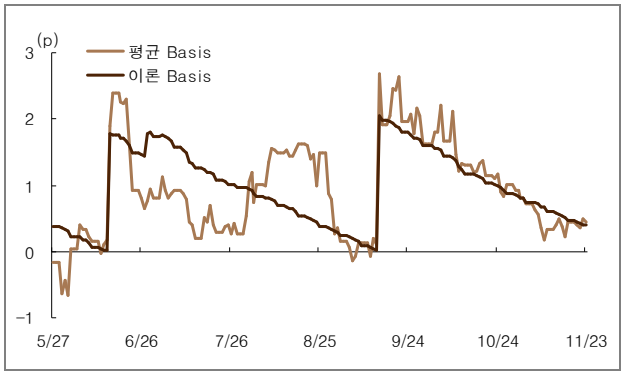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증감	변동성
14.17	4,513	82,125	0.43	262.50	11.20	16	3	15.16
14.12	-708	172,210	0.75	260.00	8.85	91	22	13.71
14.20	-1,128	135,277	1.27	257.50	6.85	595	87	13.76
14.35	-262	142,058	2.04	255.00	5.10	2,846	333	13.86
14.78	-1,130	100,488	3.15	252.50	3.75	6,758	593	14.48
15.23	-472	16,833	4.55	250.00	2.66	29,201	3,176	14.95
15.87	284	7,273	6.25	247.50	1.82	82,586	3,160	15.35
16.45	-24	1,952	8.15	245.00	1.23	93,094	2,996	15.87
15.47	34	662	10.00	242.50	0.82	85,006	2,429	16.44
17.02	96	595	12.35	240.00	0.53	89,645	2,278	16.93
11.94	-1	6	14.35	237.50	0.35	58,649	3,629	17.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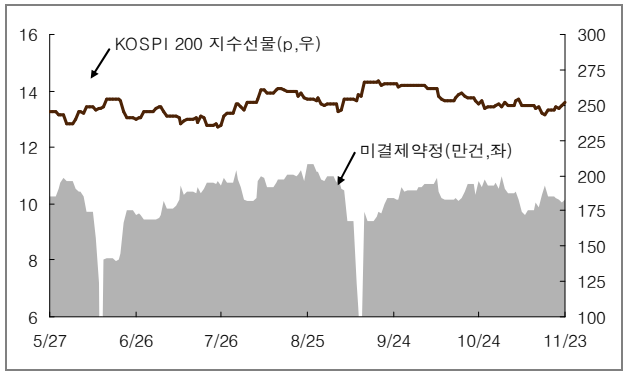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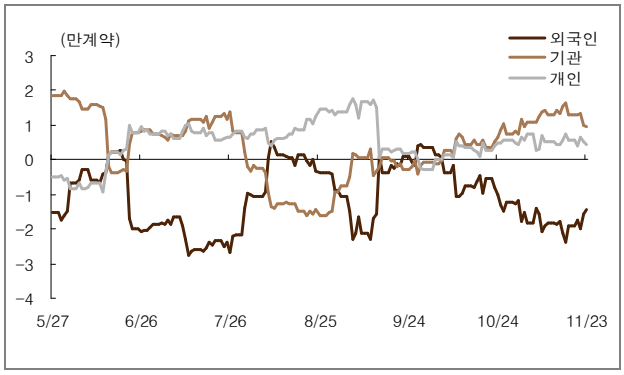
- 평균 Basis: 0.45 (전 거래일 대비 0.05 하락)
- 이론 Basis: 0.41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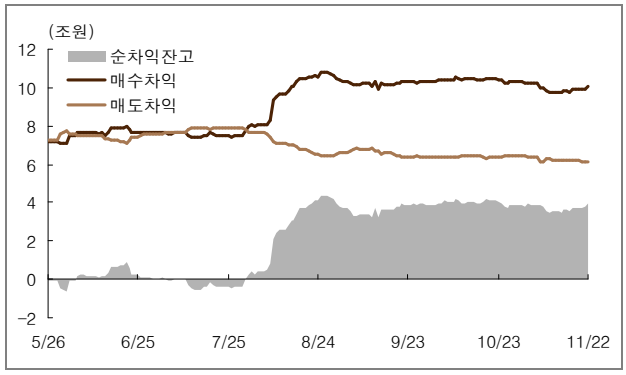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1,273 계약 증가한 101,606 계약
- 선물가격(251.90): 전 거래일 대비 1.95p 상승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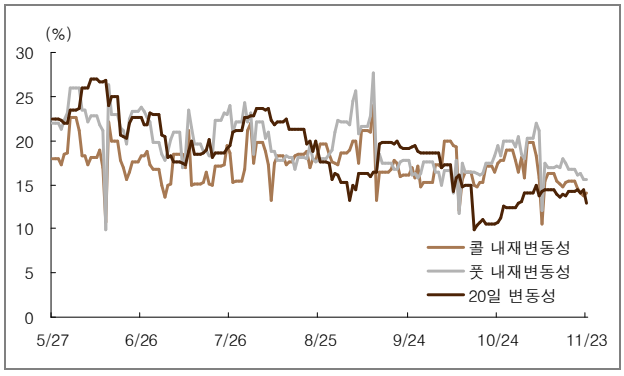
- 외국인: 1,364 계약 순매수
- 기관: 454 계약 순매도 / 개인: 890 계약 순매도

차익거래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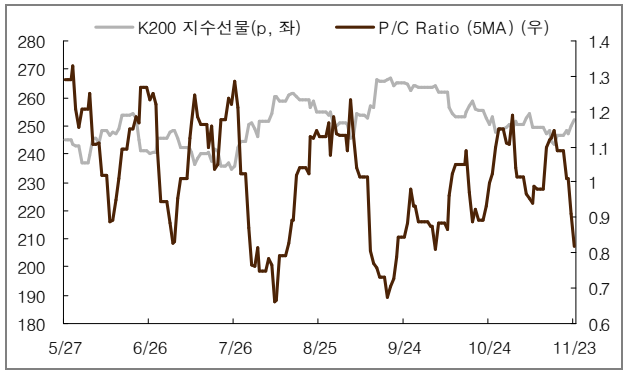
- 차익거래: 70 억원 순매수
- 비차익거래: 855 억원 순매수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4.0% / 풋 15.6%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2.98% 기록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0.82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2년 9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이수정(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9	20	21	22	23
美> 11월 NAHB 주택시장지수 (46, 41, 41) 10월 기존주택매매 MoM (2.1%, -0.2%, -1.7%)	美> 10월 주택착공건수 MoM (3.6%, -3.7%, 15.0%) 10월 건축허가 MoM (-2.7%, -2.9%, 11.6%) 유럽>> 그리스 구제금융 특별 회의 中> 10월 실질 FDI (-0.2%, 1.0%, -6.8%) 日> BOJ 정책금리 (0.10%, 0.10%, 0.10%)	韓> 10월 백화점 매출 YoY (-0.4%, n/a, -0.8%) 10월 할인점 매출 YoY (-6.6%, n/a, 0.2%)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2.2%, n/a, 12.6%)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41.0만, 41.0만, 43.9만) 10월 경기선행지수 MoM (0.2%, 0.1%, 0.6%) 日> 10월 수출 YoY (-6.5%, -4.9%, -10.3%) 10월 수입 YoY (-1.6%, -3.2%, 4.1%)	유럽> 11월 유로권 소비자기대지수 속보치 (-26.9, -25.9, -25.7) 11월 유로존 PMI 제조업 속보치 (46.2, 45.6, 45.4) 11월 유로존 PMI 서비스 속보치 (46.0, 45.7, 46.0) (11/22-23) 유로존 정상 회담 中> 11월 HSBC플래시 PMI 제조업 (50.4, n/a, 49.5)	美> 블랙 프라이데이
26	27	28	29	30
韓> **11월 소비자 기대지수** (n/a, n/a, 98) 美> **사이버 먼데이** 유럽> (11/25) 스페인 카탈루냐 조기 총선 **제2차 그리스 구제금융 특별 회의**	韓> **제18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美> **10월 내구재 주문 MoM** (n/a, -1.0%, 9.9%) **9월 S&P/CS주택가격지수 MoM** (n/a, 0.40%, 0.49%) **11월 소비자기대지수** (n/a, 73.0, 72.2) **9월 주택가격지수 MoM** (n/a, 0.4%, 0.7%) 연준 베이지북 공개 中> **10월 선행지수** (미확정) (n/a, n/a, 100.49)	韓> **10월 경상수지** (n/a, n/a, $6,066.2M)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n/a, n/a, -2.2%)	韓> **12월 BSI 제조업** (n/a, n/a, 70) 12월 BSI 비제조업 (n/a, n/a, 67)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n/a, 41.0만) **10월 신규주택매매 MoM** (n/a, -0.8%, 5.7%) **10월 미결주택매매 MoM** (n/a, 0.8%, 0.3%)	韓> **10월 산업생산 YoY** (n/a, 1.0%, 0.7%) 10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MoM (n/a, n/a, -0.7) 美> **10월 개인소득 MoM** (n/a, 0.2%, 0.4%) **10월 개인소비지수 MoM** (n/a, 0.1%, 0.8%) 유럽> **10월 유로권 실업률** (n/a, 11.6%, 11.6%) 日> **10월 실업률** (n/a, 4.2%, 4.2%) **10월 국내 CPI YoY** (n/a, -0.4%, -0.3%) **10월 산업생산 YoY 속보치** (n/a, -8.0%, -8.1%)
3	4	5	6	7
韓> (12/1) 11월 수출 YoY (12/1) 11월 수입 YoY (12/1) 11월 무역수지 11월 외환보유액 (미확정) 11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美> 11월 ISM 제조업 10월 건설지출 MoM 유럽> 11월 유로존 PMI 제조업 속보치 (12/1) 스페인 배드뱅크 출범 中> (12/1) 11월 PMI 제조업 11월 PMI 비제조업 11월 HSBC PMI 제조업	美> 11월 국내 자동차판매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11월 ADP취업자 변동 11월 ISM 비제조업 10월 제조업수주 MoM 유럽> 11월 유로존 PMI 서비스 속보치 10월 유로권 소매판매 YoY 中> 11월 HSBC PMI 서비스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유럽> ECB 금리 공시 BOE 금리 공시	美> 11월 비농업부분 고용자수 변동 11월 실업률 10월 소비자신용지수 12월 미시건대 소비자신뢰지수 속보치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이전치는 수정 값 미반영분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Memo

Memo